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2015 년 추수감사절 설교 >

#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김 건목사 (카와사키교회, 총회 부서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7)

### 주님의 감사를 기억하라

감사절을 맞이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살아 온 날들을 뒤돌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을 상기 하면서 주님에게 소박한 감사를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 모두 4 장 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짧은 편이지만, 그 안에는 <감사>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도 <감사> 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도 <감사> 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님께 감사를 돌려라

누가복음 17 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 가실 때, 엄청난 피부병 (나병환자) 을 앓고 있던 10 명의 한자들이 예수님을 뵈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치게 해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거라 “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피부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눅 17:17-18)

###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감사를 잊지 말라

저의 상상입니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감사를 모른다 “, “어쩌면 저렇게 간단하게 감사를 잊어버릴까 “ 라는 현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므로 골로새서는 강하게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만약 지구가 100 센치 공이라면 “ (『地球がもし 100 cm の球だったら』) 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단행본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 전에 출판 된 “만약 지구가 100 명 마을이라면 “『もし地球が 100 人の村だったら』 이라는 책의 자매판입니다. 이 책도 읽고 공부 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구를 줄여서 직경 100 센치라고 상상해 본다면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 (성층권과 오존층은 별도) 은 약 1 미리 밖에 없는 얇은 막이며, 바닷물은 맥주 한병 정도이며, 빙하 이외에 마실 수 있는 물은 5cc 입니다. 즉, 작은 티 스푼으로 한잔 정도라는 등의 흥비로운 기록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인간의 크기는 0.1 미크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지구는 풍요롭게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 만나 > 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즉,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필요한 욕망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피조물을 아름다운 균형은 깨져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들의 환경과피 등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형태 중에 하나인 “주어진 은혜에 감사 “를 잊지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7)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리고나서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바보같은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신앙생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관서지방회> 사카이교회 창립 88 주년을 맞이하여



< 창립 88주년 기념 >

2017년 사카이교회는 창립 90 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교의 과제를 물으면서 확실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올해 88주년 행사를 가졌다.

먼저 9월 중순에는 “신앙의 원점을 바라보며 재출발”이라는 주제로 나가사키 5도 열도와 히라도를 순례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또한 교포, 오사카 북부, 오사카 후세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협력과 참여로 인하여 실시할 수 있었다. 사카이교회의 88년의 역사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기도가 협력에 힘 입어 왔음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의 변경인 5도 열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난가거나 이주를 한 신앙인의 증거들로 박해에 굴하지 않는 영혼의 흔적들이 있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10월 25일(주일)은 창립기념일인데, 오전 예배는 김필순담임목사가 “함께 강을 건넌다” (여호수아 3:14~1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후에는 먼저 영상으로 순례 행사를 보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다. 또한 이해경, 이마이즈미 켄이치 집사가 순례를 통하여 주어진 힘있는 간증을 하였다.

지금 사카이교회의 신도는 고행화로 인하여 교회학교와 청년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 입어 걸어가고 있다.

(보고 : 김필순목사)

## <관서지방회> 오사카북부교회 창립 90주년 / 명예장로 추대식

9월 27일(주일), 오사카 북부교회에서는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김석수명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예배는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정남명예장로가 기도한 후에 성가대가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곡으로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서 김영식명예목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계속해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22년간 충실하게 봉사해 온 김석수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조목사가 명예장로 추대와 선언에 이어서 추대패를 증정한 후 김장로가 답사했다.



그 후에는 90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동 교회에 오래된 신도 8명(기준: 50년 이상 본 교회에 속한 80세 이상)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9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였던 납골당 건립에 참여했던 “A3 디자인(주)” 일급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柏木茂洋氏)와 “나카히데석재점(주)” 전무이사(森清和氏)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축하는 총회 대표로 정연원목사(오사카교회, 제49회 총회장)가 나섰으며, 지방회 대표로는 김종현목사(나니와교회, 관서지방회장), 本庄東二振興町会 회장(石井英明氏), 동 교회의 제3대 목사였던 故배기환목사의 차녀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축하는 모태성장로와 마키노 준코 집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90년간 오사카북부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들렸다.

(보고 : 조영철목사)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ゲー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 <관동지방회> 시나기약교회 박영원장로 장립식



10월 18일 (주일), 시나가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장로로 선출된 박영원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본 교회에서는 이광우, 이기춘 장로가 명예장로로 추대되고 나서 새로운 장로가 장립될 것을 오랫동안 계속 기도를 해 왔다. 그 결과로 인하여 금번에 여성 장로가 장립되게 되어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바쁜 가운데도 많은 내빈들과 관동지방회 각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참여해 은혜로운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예배는 강장식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명충목사(요코하마교회)가 기도한 후에 김병호목사(종간사)가 “쓰임받기 위하여”(마가복음 10:35~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관동지방회장 김근식목사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새롭게 장립된 장로와 교회에 대한 권면은 윤초자장로(동경중앙교회)가 맡았으며, 축사는 김근식명예목사(동경교회)가 나눴다.

총회 안팎에서 보내 온 축전과 축문을 피로한 후에 마지막은 시나가와교회 신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감사하며 은혜가 풍부한 교제를 나누었다.

박영원장로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1986년에 시나가와교회에 등록한 후에 1990년부터는 서리집사로 봉사하였다. 2008년부터는 권사에 임직되어 좋은 봉사자로서 본 교회와 관동지방회 등에서 성실하게 봉사해 왔다.

(보고 : 강장식목사)

一歩一歩、クリスチャン教会・企業経営サイト  
**レホボ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h.jp>  
 Tel: 090-3946-3373  
 e-mail: info@rehoboth.jp  
 住所: 兵庫県芦屋市朝日ヶ丘 10-35-50  
 レホボトジャパン 検索

# <関東地方会> 品川教会 朴英遠長老将立式

10月18日(主日)、品川教会では朴英遠長老将立式が執り行われた。

本教会では、李光雨・李起春長老が名誉長老に推戴されてから、新たな長老が将立されることを願い、長い間祈り続けた。その結果、女性長老が将立されるようになり、これからの活躍が期待される。

多忙の中で、来賓や関東地方会各教会の牧師や信徒達が参加し、恵みの内に式が捧げられた。



礼拝は、姜章植担任牧師の司会で、李明忠牧師(横浜教会)の祈り、金柄鎬牧師(総幹事)が「仕えるために」(マルコによる福音書 10:35~45)という題で説教した。

引き続き、関東地方会長金根湜牧師長の司式により、長老将立式が執り行われた。新長老と教会員への勧めは、尹初子長老(東京中央教会)、祝辞は金君植牧師(東京教会名誉牧師)が述べた後、総会内外からの祝電・祝文が披露された。

最後は、品川教会の信徒たちが心を込めて準備した食事を感じながら恵み豊かな交わりをした。

朴英遠長老は、信仰の家庭で生まれ育ち、1986年品川教会に登録し、1990年からは署理執事として奉仕して、2008年からは勸士に任職され、良き奉仕者として本教会と関東地方会などで奉仕して来た。

(報告 : 姜章植牧師)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제일대한국독교회>

## 제 53 회 정기 총회



10월 11일 (주일)~13일 (화), 제일대한국독교회 제 53회 정기총회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장막을 이 세상에 펼치자” (마태복음 5:19)는 주제로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주일 오후 7시부터 서기 이근수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회장 조중래목사가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25~30)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부총회장 김성제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헌금 시간에는 “제 3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 회의”를 위하여 드려졌다.

총회 개회는 총대 127명 (목사 68, 장로 51, 여성위원회 8)을 확인하고 개회가 선언되어 2박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총회 순서채택에 이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새로운 총대와 이번 회기 중에 은퇴하는 총대, 전 총회장과 부총회장에 이어서 내빈들이 소개되었다. 주요 내빈들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유동선목사, 총무 김진호목사,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 채영남목사, 미국 합동 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BGM) 한인목회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목사, Czech 형제 개척교단 이종실목사



첫째 날은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이 승인 된 후에 끝났다. 둘째 날은 “소전자 주도 예배” 후에 임원 선거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 총회장은 김성제목사 (나고야), 부총회장은 김필순목사 (사카이), 윤성철장로 (코베)가 각각 선출되었다. 기타 임원 및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서기: 조영철목사, 부서기: 김 건목사, 회계: 김성원장로,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교육위원장: 김명균목사, 사회위원장: 정수환목사, 신학교시위원장: 김무사목사, 신도위원장: 김신야목사, 헌법위원장: 나카에 요우이찌목사, 연금위원장: 김수남장로, 찬송가위원장: 한택주목사, 감사: 양창희장로

이어서 김무사목사의 사회로 “신구 임원 교대식”을 하여 의장이 김성제 신총회장으로 교체되었다. 그 다음은 각 위원회가 발표되었다. 또한 분과회의 안내에 이어 각위원회 및 각 기관의 보고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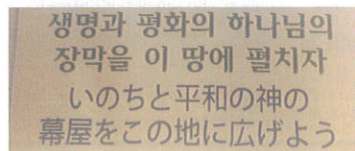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6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분과회가 진행되었으며, 저녁식사 후에는 각 분과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므로 총대원들이 공유하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각 위원회가 회의를 한 후에 둘째 날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셋째 날은 경건회로부터 시작하여 의사 진행에 들어가서 각 위원회의 활동 계획 보고와 질의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양일간에 걸쳐 결의된 주요 헌의안은 “총회 기구 개혁 특별위원회”설치가 승인되어 위원장에 이근수목사가 추천되었다.

또한 선교 100주년 때 계획했던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와 승인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와 총간사에게 일임되었다. 기타 헌법과 규칙, 세칙 등의 변경, KCC, RAIK, 서남 KCC, 제일 총회 신학교의 이사가 승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안보법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보고서 심사위원 보고에 이어서 차기 총회 장소와 시간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예배로 이어져서 김성제 총회장의 설교와 폐회선언으로 폐회하였다.



(보고: 편집부)